

사회복지 서비스에 관한 기독교적 관점:

-독일 디아코니의 사회적 책임과 실천을 중심으로-

-최 운영¹⁾

“Und auch deinen Mitmenschen sollst du so lieben wie dich selbst”,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눅 10:27)

I. 도입

한국이 복지국가로 본격적인 방향을 잡고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말 경제 위기 이후부터 라는 견해가 대체로 지배적이다. 1990년대 까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는 소득보장 정책을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며, 사회복지서비스는 공공부조 수급자와 저 소득층에 부가적으로 제공되어 온 잔여적인 복지의 성격을 유지해 왔다. 국가에 의 한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은 극히 제한된 수준으로 제공되었으며, 주로 정부의 재정 적 지원을 받는 민간 영역이 주로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였다고 볼 수 있다. 지난 10년간의 서비스 제공 주체의 비중을 살펴보면, 비영리 민간부문의 사회복지법인이 전체 사회복지시설의 81.2 %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민간 운영 비율은 16. 3% 그리고 공공부문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2. 5% 정도 이다(김영중, 2003).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서비스체계는 재정지원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정부와 서비스 제공 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비영리 민간부문의 분담관계 속에서 발전하였다. 그동안 사 회서비스 분야에서 두 주체의 관계는 정부가 민간기관에 대해 서비스를 위탁하고 위탁기관 운영비를 정부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현재의 사회복지제도가 부딪치고 있는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는 주요 사회보험 프 로그램들이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점이다. 특히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그 우려의 대상이다. 2007년 법개정을 통해 2008년에 급여수준을 50 %로 낮추고 이후 매년 0.5 % 씩 계속 인하하여 20년 후에는 40 %까지 인하할 방 침이다.

우리나라의 급속한 인구고령화²⁾는 사회복지장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악화시키 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최근 소득양극화 성장체계가 일자리 불안의 근본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으로 새롭게 필요한 부분에서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해야 하는데, 신자유주의의 "작은 정부" 에 대한 논쟁에 사로 잡혀 이 부분의 일자리 창 출이 기대에 못 미치게 된 것도 일자리 불안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2003년 기준 OECD 국가들의 사회복지서비스 고용비중을 보면, 노르웨이 34.2%, 덴마크 31.3 %, 핀란드 27.3% 등이었고, OECD 평균이 21.7 %이었으나, 우리나라는 12.6%에 그 쳤다.(김혜원 등, 2006).

한편으로 한국은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2008년 기초노령연금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이 도입되어 5대 사회보험의 사회보장국가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실제 내용 면에서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절대 빈곤층을 모두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기초생 활보장제와 전체의 5 %의 급여율에 불과한 기초노령연금이 그 위상을 보여주고 있 다. 게다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광범위한 사각지대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는 한국의 사회보장 및 복지예산 비율이 매우 낮은 데에 있다. 정부 예산에 대한 사회보장예산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10 %대에 머물 러 있어 한국의 현실에서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역사적인 출발점은 기독교적인 전통에서 찾을 수 있 는데, 이러한 근거는 "사회복지적인" 것이 "기독교적인"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우선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기독교적인 관점을 조명해 보고, 구체적인 사례로 독일의 디아코니를 중심으로 사회적 책임과 실천 예들을 살 펴봄으로써 한국사회와 기독교에 시사해주는 함의점과 실천적 신앙을 조명해 보고 자 한다.

II.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기독교적 관점

역사적으로 당면하였던 수많은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조직된 각종 구제구호활동 이나 최소한의 예방적 노력들 중에 그 시대의 종교가 차지했던 역할과 의미는 매우 컸다. 사회문제에 대한 종교의 복지적 개입활동은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으며, 동시에 그러한 활동은 종교의 본질과 함께 기인하였다. 종교의 사회참여와 개선활동은 사 회복지적 활동과 상당한 밀접함을 가지고 서로 발전하여 온 것이다. 오늘날에도 그 이치와 맥락은 꾸준히 이어져오고 있으며, 특히나 국가를 대표로 하는 공공복지의 한계와 이에 대한 극복 노력들이 경주되는 상황에서 민간 차원의 다양한 복지 지향

1)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전공 조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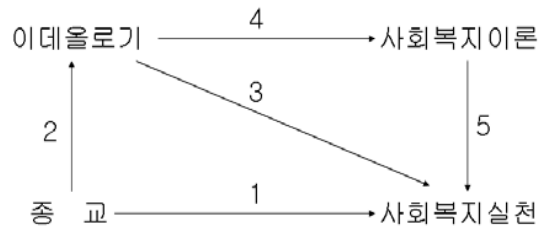
2) 65세 이상 노령인구 규모를 15~ 64세의 인구 규모로 나눈 노령부양비는 2000년도는 10.1%였다. 그러나 2030년까지는 노령부양비가 37.7%까지 증가한다.

적 노력을 중에 종교가 자리 잡고 있음은 매우 명백하다.

우선 종교와 사회복지 간의 관계를 정립해보자면, 우선 종교는 사회복지 제공자로 역할 하여 사회복지실천을 주관하기도 하고(1), 정치적 또는 사회적 이데올로기 형성에 영향을 미쳐(2) 사회복지실천을 결정하거나(3), 사회복지이론에 가치기반을 제공함으로써(4) 사회복지실천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기도(5) 한다(김영모, 1986: 5; <그림 1> 참조).

그러나 이러한 시점에서 종교가 갖는 고유의 신앙적 믿음과 이에 대한 포교나 선교의 기능 혹은 이러한 욕구는 과연 사회복지와 어떻게 조화되고 성립되어야 하는가? 이 질문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제기될 종교와 복지, 복지와 종교 사이의 정체성 정립의 문제와 계속 같이 가야할 중대문제일 것이며, 동시에 종교의 사회참여가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중요한 접근법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그림 1: 종교와 사회복지와의 관계(김영모, 1986)>



류영만(1989: 130)은 위와 같은 문제 해결노력의 기본선으로서 종교사회복지의 기능은 좁은 의미의 전도나 포교와는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대상자(client)의 복지를 제일의 의의에 두어야 하는 사회복지적 측면에서는 전도나 포교의 기회가 주어지느냐 아니냐는 그 다음이기 때문이다. 즉 사회복지의 신앙의 무언극(無言劇)으로서 언어에 의존하지 않고 손과 발로 선교하는 익명화(匿名化)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종교는 이러한 일을 선교나 포교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으로, 여기에 사회복지의 선교적 및 포교적 기반이 이루어진다고 강조하였다.

1. 기본원리

오늘날 우리가 접하고 인식하고 있는 대부분의 종교들은 인간 혹은 이웃에 대한 사랑에서부터, 그 표현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사랑을 비롯해 매우 인도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색깔을 지켜오고 있다. 이것은 그 자체로 사회복지의 기본이념

과 일치하는 것이기도 하며, 나아가 남을 이롭게 함으로써 내면의 성숙을 기하는 이타주의적 행동으로서 다시금 종교적 가르침의 원리와 상통하는 것이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두 가지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³⁾. 하나님의 사랑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Gottesdienst)이며 이웃의 사랑은 사람과 사람사이의 사회봉사(gesellschaftliche Diakonie)로 표현될 수 있다.

마틴 부버(Martin Buber)에 의하면, 인간은 “나(Ich)”로서는 존재하지 않고 “나와 너(Ich und Du)” 또는 “나와 그것(Ich und Das)”이라는 상대와의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인간은 신, 인간, 자연을 비인격적인 “그 것(Das)”으로 상대하지 않고 인격적 대상 즉 “당신”으로 상대함으로써 너와 내가 함께 인격적인 존재로 살아나게 된다(Buber, 1974). 기독교 신학적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과 “나와 너”의 관계를 맺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인간은 하나님의 은총 아래서 이웃과 자연에 대하여 “나와 너”의 관계를 맺어나가야 한다. 기독교의 사회복지의 바로 이러한 관계설정을 위한 구체적인 태도이고 행동이다.

이와 관련해 김인중(1999: 203-207)은 종교의 복지활동에 나타난 사회복지의 고유성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리로 설명한 바 있다:

첫 째는 ‘인간존중의 원리’로서, 종교는 하나의 사회적 존재이며, 종교의 사회복지이념은 인간애를 바탕으로 한 휴머니즘에 기반하고 있다고 전제된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와 종교는 인류사회에 대한 궁극의 목적이자 생존가치인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박애정신, 인도주의 등과 관계가 있음을 강조한다. 즉 사회복지의 고유성은 종교의 사회복지사업이 휴머니즘의 대중적 실천운동이라는 면에서 자유와 평등이라는 인권의 보장을 의미하고 있으며, 기존 사회구조의 제도적 틀과 인간의 요구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한 서비스가 인간의 존엄성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인간존중의 원리가 바로 사회복지의 철학이고 가장 중요한 기본이념이 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자립원조의 원리’를 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인중은 종교사회사업의 주된 영역들이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과 후원자 프로그램 등은 바로 이러한 자립원조에 근거하여 지역사회에 뿌리 내렸음을 확신한다. 이에 대해 “신실한 공동체가 자비롭게 사회체계에 개입하도록 준비시키고 개인 간에서 배려하는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전문 사회복지사의 주된 역할”이라는 Hessel(1992)의 언급을 인용, 사회복지의 기반과 기능이 자립원조라는 종교적 상생관계의 법칙에 근거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세 번째는 ‘사회통합의 원리’로서, 사회복지가 빈곤 및 소외계층에 대한 제도적 사회통합의 원리를 지니고 있듯이 이데올로기에 따른 관념적 제도로부터 벗어나는 실천적 틀은 종교의 사회복지가 통합의 역할을 맡고 있음을 의미한다.

3) 누가복음에서 한 율법사가 예수께 와서 질문을 하였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에 대한 대답은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눅 10: 25-37).

2. 기독교사회복지의 개념화

기독교와 사회복지의 접목이라는 점에서 칭하게 된 '기독교사회복지'는 기독교적 행위의 근간이자 상징의 표현인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교회사회복지'라고도 한다.

기독교사회복지란,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파하고 세상 가운데 실천해 나아가는 기독교인들의 체계적인 노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김봉익, 1994: 231). 또는 교회사회복지의 이름으로 보다 지역접근적이고 실천적인 의미의 정의도 가능할 것이다: "교회가 주체가 되어 자체 교회 내의 사람 및 교회 밖의 사람들인 개인, 가족, 집단 및 지역사회의 당면문제나 공통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위해서 계획적이며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최성재, 1994: 252-253).

이에 김기원(1998: 34-35)은 좀 더 종합적이고 보다 더 종교사명적인 관점에서 기독교사회복지를 정의하고 있다: "기독교의 근본정신인 이웃사랑과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열악한 처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물질적,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양적, 질적으로 완화시키고 생활상의 곤란을 개선시켜 줌으로써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성서적 정의를 실천하며 상실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려는 기독교인들의 제도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자, 가치체계다."

이들을 통해 보았을 때, 기독교사회복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동시에 사랑을 실천하는 기독교인들의 일련의 활동으로서, 교회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지역사회 및 구성원들의 생활을 개선하며, 이를 통해 궁극적인 성서적 가치실현에 헌신함"으로 재정의 할 수 있을 것이다.

3. 기독교적 관점: 사회적 책임과 실천

기독교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은 곧 사랑"⁴⁾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기독교의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이며, 이웃의 사랑은 이웃사이의 사회봉사라고 볼 수 있다⁵⁾.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 중 신약성서의 고린도전서 13장에 의한 사랑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인식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랑은 곧 기독교적인 의미의 도움이나 나눔으로 인식될 수 있는데, 케이스-루카스(Keith-Lucas)는 기독교적인 의미의 도움 과정은 네 가지 주요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한다. 첫째, 어떤 이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문제를 인정하는 것이 필수적인 회개, 둘째, 그 문제를 누군가에게 알리는 것이 필수적인 고백, 셋째, 익숙하고

4) 기독교의 사랑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와 인간과 그의 이웃의 관계에서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는 화해의 섬김과 평화의 수립(고린도후서 5장)으로 나아가게하고, 산상수훈의 이웃사랑의 실천을 지향해야 한다.

5) 에베소서 4:12.

오래되었으나 비생산적인 행동을 포기하는 것이 필수적인 복종, 넷째, 변화노력의 긍정적인 결과에 대한 확신 이다(박승희 외, 2006). 또한 루터 역시 사랑은 믿음의 열매라고 언급하면서, 그의 종교개혁 사상내에 사회봉사의 측면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신약에서의 예수의 행위를 살펴보면, 예수가 사랑을 실천하는 척도라고 볼 수 있다.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단지 말뿐이 아닌, 치유, 도움 그리고 나눔이라는 실천을 했다⁶⁾. 그는 빈자들을 구체적으로 돕고, 소외된 이웃과 나누며 병자들을 치유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기독교의 실천현장인 교회들이 도움과 나눔이 필요한 사회의 계층들에게 섬김과 나눔을 경험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⁷⁾.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교회는 그의 몸이고 우리는 그의 지체이다. 교회는 공동체화되어진 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다.

교회가 존재하는 근거는 하나님의 섬김과 함께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준비하는 것이며, 이러한 나눔과 사랑은 하나의 영적인 은사로서 다른 은사의 협력속에서 교회를 섬기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한다. 교회라는 단어인 에클레시아(ἐκκλησία)의 어원적인 뜻을 추구할 때 교회는 집합적이며, 지역적이고, 연합적이다. 따라서 교회는 본질적으로 진리의 선포(케리그마: kerygma)와 성도의 친교(코이노니아: koinonia) 그리고 사랑의 봉사(디아코니아: diakonia)의 세 가지 기능을 갖고 있다(Reinhard, 2001). 그러므로 이웃에 대한 사랑은 신앙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신앙은 사랑을 통해 행동한다⁸⁾.

궁극적으로, 기독교는 전문적인 사회복지실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전통은 중세시대에 성경에서 강조하는 이웃사랑 (Nachstenliebe)을 조직화하는 개념으로서 수도원(Kloster)과 수용시설(Hospital)이 빈민 구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에서부터 시작하였다. 많은 전문적, 자발적 사회서비스는 기독교 교회의 도움을 받아 제공되었다.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독교의 조직 3개는 미국 가톨릭 자선회(catholic Charities USA), 루터교파 사회봉사회(Lutheran Social Services) 그리고 구세군(the Salvation Army) 이다(박승희 외, 2006).

III. 독일 기독교의 사회적 책임과 실천

2006년 말 현재 독일의 인구는 약 8,230만 명으로, 이 중 기독교인은 약 5,500만 명이며, 개신교인과 가톨릭교인의 비율이 거의 절반씩을 차지하고 있다.⁹⁾ 교회의 사회참여는 역사적으로도, 또 오늘 현재에도 독일사회를 유지하고 지탱해나가는 원동력이자 본질적 행동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사회 내 갖가지 상황들에 대한

6) 마가복음 10:45, 누가복음 12:37, 22:24, 요한복음 13:12-15.

7) 로마서 12:7, 고린도전서 12:5.

8)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좇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갈5:6)

9) <http://www.destatis.de/jetspeed/portal/cms>

독일교회의 참여와 정치적 활동은 실제로 밀접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선 독일교회의 사회참여(정중훈, 2004: 19-25참조) 부분을 살펴보고, 이어서 개신교회의 디아코니봉사회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망해보고자 한다.

우선 독일 개신교회연합회(DKD)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주요 이슈들이 대두될 때마다 수시로 교회의 입장을 문서로 표명해 왔다. 너무 늦으면 결코 돌이킬 수 없다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의 뼈아픈 경험이 독일교회에 대해서 파수꾼의 직무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입장표명은 근본적으로 각종 문제의 논점을 진지하게 인식하고, 신앙적인 입장에 근거하여 해명함으로써 문제를 책임 있게 감당하려는 데 있으며, 또한 공공토론을 통해 보다 나은 대안을 창출함으로써 기독교인 개개인의 신앙이 삶에 개입되도록 도전하려는 데 있다.

교회를 통한 정당정치의 실현도 주목할 만하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독일에는 기독교적이면서도 초종파적이고 사회 각계각층에 개방되어 있는 국민정당으로서 기독교 민주연합당(기민당, CDU)과 기독교사회연합당(기사당, CSU)이 생겨났다. 이들은 연합당(CDU/CSU)으로서 새로운 국가건설에 기독교윤리적인 원칙과 입장을 반영하면서도 결코 종교나 종파적 배타 없이 정치규범을 실천해 오며 여전히 건재하게 활동하고 있다. 또한 기독교의 양 교회는 격년제로 독일 개신교회의 날(Deutscher Evangelischer Kirchentag)과 카톨릭 교회의 날(Deutscher Katholikentag)을 개최하고 있다. 단순한 초종파적인 축제의 장으로 그치지 않고, 기독교의 현실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자기성찰의 장, 국가적 반성과 비전을 제시하고 신앙과 기독교적 가치로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선교의 장들을 펼치며 전 사회적인 분위기를 성숙시키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1. 디아코니봉사회(Diakonisches Werk der Evangelischen Kirche in Deutschland: DW der EDK)의 개관¹⁰⁾

먼저 ‘디아코니’(Diakonie)란, ‘섬김’ 내지 그에 따른 ‘직무’를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기인하였으며, 이는 실질적인 의미에서 개신교회들의 사회구제활동을 말한다. 어원적으로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dia (δια: 통하여)라는 단어와 Konia (kovia: 먼지)라는 단어의 합성어로서 “먼지 가운데로 지나서 가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봉사’와 ‘섬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실천적인 이웃 사랑(Nächstenliebe)은 다르지 않다고 보기에, 디아코니 기관들은 인간에 대한 다양한 봉사를 믿음으로 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적인 곤경과 부당관계에 처한 사람들을 돕거나, 이러한 곤란한 상황들의 원인을 제거하고자 노력한다.

10) 디아코니봉사회는 개신교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단체이다. 디아코니봉사회의 산하시설은 독일 전국에 약 27,000 여개가 있으며, 시설 수용능력은 100만 명 정도이고 운영을 위한 정규직 직원은 약 45 만 명 정도이다(www.diakonie.de)

2. 디아코니봉사회의 역사와 조직

조직화된 디아코니의 역사는 1848년에 시작되었다. 함부르크(Hamburg)의 신학자 요한 힌리히 비헤른(Johann Hinrich Wichern)¹¹⁾은 비텐베르크 교회의 날(Wittenberger Kirchentag)에 즈음하여 정신적, 물질적, 사회적 곤궁에 대한 국내선교를 초안하게 되었으며, 이어 ‘독일 개신교회의 국내선교를 위한 중앙위원회’가 설립되었다. 19세기 중반 산업화로 인해 빈민, 실업자, 요보호 아동을 돕기 위해 복지 시설을 만들었으며, 내적선교(Innere Mission)의 개념을 가지고 기독교사회운동을 확산시켜나갔다. “내적선교”는 지역주민이 교회에 가지 않으면 교회가 그들을 찾아가야 한다는 개념이다. 가난한 사람, 과부와 고아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활동을 하였다.

이후 독일 곳곳에서 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사회교육 및 구제와 요양을 위한 각종 기관 및 시설들이 생겨남으로써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2차 세계대전 후 독일에는 개신교회의 구제구호국(Hilfswerk der Evangelischen Kirche)이 조직되었으며, 독일의 식량난을 해결하고, 추방자와 난민자들을 정착시키며 청년직업난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대외원조를 개척하거나 전교회적 연계를 도모하였다.

국내선교국과 구제구호국은 1957년 이후 연방교회차원으로 통합되었다가 1975년 개신교회연합회의 디아코니봉사회(Diakonisches Werk)로 거듭나게 되었다.

독일 개신교회연합의 디아코니봉사회는 연합회 소속 22개의 주지방 교회들과 각종 사회사업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81개의 전문단체들, 그리고 봉사회에서 협력하고 있는 9개의 독립교회로 구성되어 있다. 최고기구는 디아코니 협의회(Diakonische Konferenz)로서 독일 디아코니 사업에 대한 기본원칙을 결정하고, 디아코니 위원회의 구성원과 디아코니 의장을 선출한다. 봉사회의 경영계획과 연말결산, 시설과 단체들의 회원 결정 등에 대한 논의와 조직의 모든 중요과제에 대해 조언하고 결의할 수 있다. 디아코니 위원회(Der Diakonische Rat)는 감독기구로서 협의회의 의결에 대한 실행을 관리한다.

디아코니 연방협회(Der Bundesverband)는 베를린(Berlin)과 슈투트가르트(Stuttgart) 등 두 개의 도시에 각 사무소(Dienststelle)를 두고 있다. 베를린 사무소에는 국내선교를 포함하는 의장국과 보건, 재활 및 요양센터, 가족, 통합, 교육 및 빈곤센터 등 국내 사회봉사를 관장하는 본부를 두고 있다. 반면 슈투트가르트 사무소에서는 경영 및 행정관련 본부와 함께 전교회적 사업본부(ökumenische Diakonie)가 자리하여 산하에 대외홍보 및 정책, 프로젝트 등을 관장하는 주무부서들을 두고 있으며, 여기에는 디아코니 재난구호(Diakonische Katastrophenhilfe) 부서도 존재하고 있다. 주(州)단위 연합회(Landesverband)는 일선의 지역 및 지방

11) Johann Hinrich Wichern(1808-1881)은 기독교주의(Christentum)로부터 사회가 멀어지면서 사회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믿은 목사이면서 사회운동가로서, 내적 사명(Innere Mission)이라는 단체를 조직하여 고아원을 비롯한 각종 장애인 시설을 설립하였다. 그의 선구자적인 섬김의 사랑을 가리켜 구원하는 사랑(rettende Lieben), 도와주는 사랑(helfende Liebe), 헌신하는 사랑(opfernde Liebe)이라 하였다.

디아코니 기관 및 시설들의 주정부와 상위 사회복지단체에 대한 권익대변을 그 과제로 하며, 총 23개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단체들(Fachverbände)은 디아코니의 특정 선교영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들로서 그들은 주 단위 교회의 활동을 뛰어넘는다. 이들 전문단체들을 그들의 활동분야 및 방향에 따라서 모두 4개의 그룹으로 나뉜다:

- 노인, 장애인, 가족 등 각 사업영역에서의 기관 및 시설들의 연방협회들
- 지역사회 및 통합중심 사업 전문단체들
- 복음전도 및 목사관련 전문단체들 / 직업 및 인적 신분관련 단체들

이밖에 개신교회들의 디아코니사업공동체 (Die Diakonische Arbeitsgemeinschaft evangelischer Kirchen)는 개신교회의 디아코니봉사회와 디아코니 협의회에 함께하고 있는 독립교회들 간의 연결기구로서, 전교회적 사회봉사활동 구성을 하나의 중점으로 하고 있다.

3. 디아코니봉사회의 과제와 국내외 활동영역

위와 같이 구성된 디아코니회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독일 연방차원의 독립적 사회복지단체연합(BAGFW)을 구성하는 6대 단체 중 하나이다. 이들은 서로 연대하여 난관에 처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삶을 대비하기 위한 국가적 책무의 차원에서 원조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독일의 기본법(Grundgesetz) 상의 사회복지국가로서의 지위(Sozialstaatlichkeit)를 유지하는 데에 기여한다. 특히 디아코니회는 독일 연방의회와 정부, 유럽연합(EU)과 같은 국내외 기관들, 일반사회에 대하여 디아코니 단체들의 공동의 권익과 디아코니를 위해 일하는 모든 이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디아코니봉사회는 산하 기관, 단체, 시설들에 대한 후원과 회원들 간 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위험에 속한 사람들의 옹호자로서 사업의 전문적 발전에 헌신한다.

그에 따른 디아코니의 사회참여영역과 세부적 활동들은 매우 다양하다:

- 노인보호사업
- 실직자구호사업
- 장애인원조사업
- 모/부자가정지원 및 가족원조사업
- 여성지원사업
- 특별한 사회적 곤경에의 원조(노숙 및 무주택자, 출감자, 매춘부 원조; 여행자 및 심야이동자들에 대한 Bahnhofsmision/Mitternachtsmission)
- 보건 및 병원사업
- 청소년보호 및 장려사업 / 간병사업
- 이민자원조사업(이주민 상담 및 원조, 망명신청자, 난민, 해외이주민 원조)

- 정신병원 및 정신질환자 주거/일자리제공사업
- 중독관련 상담 및 치료사업
- 전화상담사업
- 근무자들에 대한 직업향상 및 촉진교육

디아코니회는 위와 같은 독일 내 사회참여 활동과 더불어 유럽디아코니연맹(Eurodiaconia)의 타 단체들과 함께 협력사업을 진행한다. 이미 1959년에 시작된 'Brot für die Welt'('전 세계민을 위한 빵') 사업은 모든 개신교의 주교회와 독립교회들이 연합으로 참여하였다. 이러한 사업들의 재정은 기부금으로 이루어지며, 개발도상국들에서 빈곤과 차별에 놓인 사람들의 생활개선을 위한 자조 및 자립활동을 돕도록(Hilfe zur Selbsthilfe) 운영된다.

또한 구동구권의 교회들을 위한 모금운동인 '개신교 협력 원조' ('Evangelische Partnerhilfe')나, 보다 더 포괄적으로 1994년 개신교회들의 'Hoffnung für Osteuropa'('동유럽을 위한 희망')이라는 기부금모금운동으로 중·동유럽 재건에 기여하기도 하였다. 신·구교 공동의(ökumenisch) 프로그램인 '교회가 교회를 돕다'('Kirchen helfen Kirchen')는 전도임무의 수행차원에서 유럽 내 신교의 소수파와 해외 그리스 정교회 및 지방교구들을 원조한다.

'디아코니 재난구호'('Diakonie Katastrophenhilfe')는 기부금이나 연방 및 유럽연합 회로부터의 지원을 통해 재난현장에서의 단기 및 중기구호활동을 펼치고 다른 구호기관들과의 협력을 이룬다. 아울러 외국학생들이 독일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1년에서 2년 동안 장학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들의 거리아동들에 대한 원조를 제공하는 조직들을 조정하는 사업들이 있다.

4. 재정 및 후원

디아코니의 사업진행을 위한 재정총당은 매우 다양하다. 의료 및 요양사업에 있어서의 재정은 일반적으로 우선 의료보험과 요양보험을 통해 이뤄진다. 그러나 보험조합을 통해 모든 비용을 전적으로 다 총당할 수는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수단, 예를 들면 종교세(Kirchensteuer)나 프로젝트에 필요한 기금모집 등으로 보충하게 된다. 2005년도 디아코니 협의회에서는 연말결산을 향후 인터넷에 공개하기로 결정하여, 특히 기부금의 사용과 관련해 공공사회에 대한 더 높은 투명성을 도모하게 되었으며, 또한 공공복리(Gemeinwohl)를 추구하며 활동하는 조직들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된 바 있다.

또한, 보조금, 기획재정 등은 디아코니회의 다양한 사업진행을 용이하게 한다. 이를 위한 재정은 연방정부나 후원금 외에 복권사업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독일 국영방송 ARD의 TV로도 프로그램 'Ein Platz an der Sonne'은 '돕고 당첨되기'('Helfen und gewinnen')를 모토로 하여, 복권수익의 약 절반은 노인, 장애인,

질환 및 사회적 소외민들에게 유용하게 쓰이게 된다. ARD는 그의 독일구호재단(Stiftung Deutsches Hilfswerks)을 통해 매년 7천만 유로를 지원한다.

또한 'Aktion Mensch'는 디아코니의 프로젝트와 사업들을 직접 후원하고 있으며, 후원을 위한 신청은 디아코니의 각 주연합회들을 통해서 할 수 있다.

IV. 결론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이 형성된 역사적인 뿌리는 기독교적인 전통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그 핵심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다. 즉,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섬김은 이웃을 향한 섬기는 봉사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독일 기독교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실천은 비헤른(Wichern)의 '내적사명'(Innere Mission)의 개념에서 정확히 찾아볼 수 있다. '내적사명'은 해외 선교모형을 국내선교에 옮긴 것으로, 내적사명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교회에 가지 않으면 교회가 그들을 찾아가야 한다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다.¹²⁾

교회의 과제는 전 국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이며, 온 국민을 복음화해야 한다고 그는 믿었던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비헤른은 독일 교회가 선교적이고 봉사적인 과제를 수행하는 전문적인 부서를 조직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는데, 이러한 그의 제안을 계기로 독일 교회는 사회선교부에 해당하는 '내적사명(국내선교:Innere Mission)을 조직하게 된 것이었다.

교회가 단순히 말씀을 증거하고,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회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는 선교적이고 봉사적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비헤른의 호소로 인해서, 독일 교회가 각성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를 계기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봉사회를 조직하고, 많은 시설을 설립하였으며 사회운동에 참여하기에 이르렀다.

비헤른에 의하면, 국내선교의 과제는 '새로운 삶을 제공하는'(neues Leben zu spenden) 것이었다. 그는 국내선교를 '사회적인 삶의 양식'(eine gesellschaftliche Lebensform)이라고 언급하였는데, 죄와 그의 영향으로 인한 백성들의 곤란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형제애의 손길로 치유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사랑을 행위의 지표라 언급하였다. 국내선교를 사랑으로 백성들을 구원하고 구제하는 실천의 이유로 강조하였으며, 동시에 사랑을 역사의 최종의 목표로 이해하였다. 즉, 무엇보다도 '구원하는 사랑'(rettende Liebe)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사역의 목표이며 '도와주는 사랑'(helfende Liebe)은 사역의 동기였다.

한국의 기독교는 80년대 급속하게 거대한 대형 성장기를 지나, 세계화 및 정보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급격한 환경변화와 신자유주의 경제원칙아래 치열한 경쟁속의 그 시대 한 가운데 있다고 볼 수 있다. 기독교의 본질적인 사명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새로운 각성과 교회의 적극적인 이웃 사랑 및 사회봉사적인 신앙이 요구되어지는 시대이다.

이러한 시대에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과제를 안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회적 책임과 실천을 위한 디아코니(Diakonie)는 이러한 실천의 도구라고 생각된다.

예수님이 신약에서 보여주신 삶 자체가 섬김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섬김의 실천을 언급하였다¹³⁾. 그는 우리에게 섬김의 삶의 원칙을 가리키고자 했던 것이다.

12) "Wenn die Leute nicht zur Kirche kommen, muss die Kirche zu den Leuten gehen!"

13) 마태복음 20:20-28.

[참고문헌]

- 김기원(1998), 『기독교사회복지론』, 서울: 대학출판사.
- 김봉익(1994), 『교회사회봉사총람』,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 김영모(1986), “종교와 사회복지”. 제9권: 1-13.
- 김영중(2003), “한국 사회복지에서의 공공과 민간 부문의 협력체계”.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163-188.
- 김용득(2007), “외환위기 이후 10년의 사회복지서비스 정책: 쟁점과 과제”,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자료집, 146-172.
- 김인중(1999), “복지다원사회에 있어서 종교의 사회복지역할”. 『역사와 사회』, 원광대학교 채문연구소. 제24권. pp. 193-217.
- 류영만(1989), “사회복지와 종교”. 『가톨릭교육연구』,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교육연구소. 제4권: 125-146.
- 이국진 편찬(2004). 아가페 굿모닝 성경. 아가페출판사.
- 정중훈(2004), “독일교회의 정치참여”. 『교회와 신학』, 장로신학대학교. 제58권: 19-25.
- 최성재(1994), “교회사회봉사사업 계획과 실천”. 『교회사회봉사총람』,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pp. 252-253.

BAGFW(Bundesarbeitsgemeinschaft der Freien Wohlfahrtspflege e.V.)(2002), Die Freie Wohlfahrtspflege. Freiburg.

BMGS(Bundesministerium fuer Gesundheit und Soziale Sicherung)(2004), Dritter Bericht ueber die Entwicklung der Pflegeversicherung. Berlin.

Buber, M.(1974), Ich und Du, Heidelberg.

Engelke, E.(1999), Soziale Arbeit als Wissenschaft. Freiburg.

Reinhard, T.(2001), Diakonische Einsicht, Stuttgart.

www.diakonie.de

www.destatis.de/jetspeed/portal/cms